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3. 6. 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블랙아웃 겪고도 2년간 손놓은 정부” 기사에 대한
입장 ('13.6.4, 매일경제 인터넷기사)

1. 기사 내용

- 전력정책이 총체적 난국. 2011년 9.15 대정전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었음
-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수요예측 오차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으며, 수급전망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후로 유보했음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9.15 이후 2년여가 다 돼 가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,
 - 정부는 '11.9.15 정전사태 이후 정부합동점검반과 전력위기대응 TF를 구성, 전력시스템 전반에 대한 21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작업을 마무리하였음
 - 예비력 정밀 산정, 긴급정비체계 유지, 예방정비 일정 탄력적 운용, 양수 만수위 유지 등 단기 공급능력 관리능력을 대폭 강화하였고,
 - 상시·비상시 수요관리 자원을 크게 확충하는 동시에 수요관리 전담제를 실시하였음

- 위기상황 동시 신속보고·전파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및 관련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위기대응체계도 대폭 개선하였으며,
- 비상단계별 대국민 상황전파·홍보방안을 확충하고 전력상황 정보를 국민에게 상시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음

- 특히, 수요예측에 대해서는 단기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전력거래소에 수요예측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, 수요예측 인력을 전문화함으로써 수요예측 오차를 선진국(미국 1.5~2.5%) 보다 낮은 1.27%까지 낮추는 등 정확도를 크게 향상하였음

- 빈번히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(중기 전력 전망치 평균오차 8.1%) 수요예측 오차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,

- 2000년대 초중반 과거 전력수급계획의 수요예측 오차율이 큰 것은 사실이나, 2008년 4차 전력수급계획의 중장기 오차율이 1.8%로 급감하는 등 최근들어 오차율이 크게 축소되고 있음

- 지난 3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력저소비 기조에 따라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설비확충 규모를 과소하게 반영한 측면이 있으나,

- 4차 전력수급계획 등 후속계획에서 LNG복합화력 등 긴급설비 건설, 발전소 폐지시기 연기, 민간공급능력 활용 등 보완대책을 마련, 시행해오고 있음

【 긴급설비 건설 현황 】

연 도	설비 용량	설비명
'12	212만kW	군장열병합, 파주열병합, 송도열병합 등 (집단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)
'13~'14	270만kW	신울산, 신평택, 울촌#2 (긴급설비)

【 폐지 연기 발전소 현황 】

연 도	설비 용량	설비명(괄호안은 설비용량 : 만kW)
'12	115만kW	평택#1,2(70), 서울#4,5(39), 제주GT#3(5.5)
'13	287만kW	평택#1,2(70), 서울#4,5(39), 제주GT#3(5.5), 평택#3,4(70), 인천#1,2(50), 영남#1,2(40), 영동#1(12.5)

- 특히, 금년 2월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지난 수급계획에서 반복된 **저수요 예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**
 - 과거에는 장기 수요예측에 단일 모형만 사용하였으나 금년에는 **복수 모형(미시, 거시)을 도입하고 동하계 피크를 동시에 예측**하는 한편,
 - **기상청의 장기 기상전망을 고려하여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요** 증가도 추가로 반영
 - 또한, 수요예측 오차 발생, 발전기 고장정지,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예방정비 기간 연장 등에 대비하여 선진국 수준의 **충분한 예비력(22%)**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확충계획을 마련하여 발표
- 수급전망을 연말에 발표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후로 유보했다는 지적에 대하여,
- 정부가 수급전망을 연말로 유보했다는 것은 **전혀 사실과 다름**
 - 지난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'24년 이후의 원전 추가건설에 대해서만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감안하여 제2차 에너지기본 계획 이후로 반영을 유보하였을 뿐임

※ 관련 문의 :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(02-2110-4897), 성 시내 사무관(5529)

참고

9.15 이후 주요 개선사항

분 야	주요 내용
수급예측 정확도 향상	○ 온도변화 수요증감 반영 가능한 시스템 개발 ○ 온도 샘플링 도시를 5개에서 8개로 확대 ○ 명절전후 기간중 조업률과 예상온도 최신치 반영 ○ 한전, 기상청과 예측에 필요한 정보 공유 ○ 한전과 이종 예측시스템을 운용하여 상호 보정
공급능력 관리 강화	○ 예방정비 일정 탄력적 조정, 예방정비기간 단축 ○ 예비력 기준 명확화, 공급능력 오차 최소화 ○ 하계·동계기간중 양수 상부담 만수위 유지 ○ 발전기 고장 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복구 체계 마련
수요관리 자원 확충	○ 상시·비상시 수요관리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여 자원 확충 ○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통해 수요를 절감하는 요금 기반 수요관리제도 도입방안 강구
비상대응체제 개편	○ 전력관련 기관간 매뉴얼 통일하여 실효성 제고 ○ 각 부처 및 기관별 역할 명확화 ○ Hot-Line 개설 등 즉시 상황보고 시스템 구축 ○ 경보발령 선조치·후보고 사항 명확히 규정 ○ 전력수요·공급, 예비력, 주파수 등 정보 실시간 공유
대국민 예고 강화	○ 언론·대국민 비상단계별 전력상황 사전정보 제공 ○ 언론보도 외 휴대폰문자서비스(CBS재난문자) 등 활용
계획정전 제도 개선	○ 단전대상 사전 예고체계 강화 ○ 승강기, 신호등, 병원 등 정전 취약시설 설비 강화